

# ‘자유학년제’ 올해 전면 실시... 안착까진 험로

# “장기기증 중요성 알리며 보답”

### 3년 전 실명 최봉조씨 각막이식으로 시력 되찾아

#### 도교육청, 지난해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설문 결과 학생 운영만족도 하락... 교사-학생-학부모 평가 대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피드백 활성화·소통 강화 필요”

한 학년 동안 시험(지필평가)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 도입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안착·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들의 운영 만족도 평가는 낮았고,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향후 운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맞춤

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피드백 강화, 교사 역량 강화 등의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유학년제 운영 기본 계획 마련에 앞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자유학기(학년) 교육과정 참여 교사 331명과 중1 학생 2371명 및 학부모 1161명 등 총 3863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자유학기(년)제 운영 성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자유학기(학년)제

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는 2019년과 비교해 낮았다.

학생들의 응답 변화(5점 척도)를 살펴보면 자기주도적 학습력은 2019년 4.15점에서 2020년 3.7점, 학습동기 및 흥미는 4.25점에서 4점, 협업 능력과 진로탐색 역량은 각각 4.4점에서 4점, 자아존중감은 4.35점에서 3.9점 등으로 0.25~0.45점이 낮게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뚜렷한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드백 실시’와 관련 교사들은 89.7%가 ‘자유학기(년) 수업과 평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답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56.4%, 학부모는 33.6%에 그쳤다.

운영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교사 70.1%, 학생 71.3%로 비슷했지만, 학부모는 26.7%에 그쳤고, “다양한 방법 수업 실시”는 교사는 92.7%인 반면 학생은 73.7%, 학부모는 43.4%의 응답률을 보였다.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은 학생 59.1%, 학부모 43.1%에 그쳤고, ‘진로탐색(꿈과 재능 발견)’에 대한 긍정 응답률도 각각 58.9%, 26.4%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 등에 대한 피드백 체감이 낮고, 교사·학생 대비 학부모 만족도 저하 원인을 자유학기(년)제에 따른 학력 저하 및 교육 격차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 활성화 및 자유학년제 이해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에서 장기기증으로 실명된 눈을 되살린 사례가 나왔다.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10일 제주대학교병원

에서 진행된 최봉조(72·사진·제주시)씨의 각막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곰팡이 균 감염에 의한 ‘수포성각막병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됐다. 이후 지난해 기적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수술 전 갑자기 발병한 뇌경색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그러던 지난 10일 최씨에게는 각

막이식 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술비가 문제였다. 이에 본부와 창원성결교회가 수술비 311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주치의도 수술이 아주 잘됐다고 한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벌써 흐릿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해 기분이 좋다”면서 “각막이식을 받기 전까지 장기기증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 남은 인생은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주변에 알리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창원성결교회는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아 본부에 각막이식 수술비 1200만원을 모금해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씨의 수술은 그 후원금의 첫 번째 사용처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아직 겨울이었네” 제주 동장군 ‘맹위’

제주에 눈과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해안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는 18일 오전 9시(중산간은 오후 6시)까지 눈이 오겠고, 낮 동안 해안에는 비, 중산간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17일 예보했다. 특히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 사이에 눈 구름대가 발달, 중산간 이상과 일부 동부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18일 오후 6시까지 해안 1~5cm, 중산간 3~8cm, 산지 5~15cm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제주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8일 밤까지 10~18%, 최대순간풍속 25%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18일 아침 최저기온 -1~1℃, 낮 최고기온 5~7℃로 평년보다 낮겠다. 다만 19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 1~4℃, 낮 최고기온 12~13℃로 전날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눈보라 휘날리는 성산일출봉 한파가 엄습한 17일 성산일출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코로나19, 제주 수산업에도 큰 피해

#### 제주연구원, 코로나 제주지역 수산업 영향 분석 관광객 감소로 해녀·수산물판매장 매출에 타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산업 분야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해녀와 수산물 판매장에 큰 피해

를 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측면에서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을어업(해녀)의 경우 소라 생산량과 생산액 모두 감소해 코로나19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라 생산량의 경우 2019년 827t에서 지난해 585t으로 줄어들었으

며, 생산 금액은 29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6200만원으로 줄었다.

수출 측면에선 갈치·광어·소라 모두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산물 관련 3차 산업 역시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갈치·광어·소라의 수출량은 2019년 갈치 21.8t, 광어 818t, 소라 377.7t이며 2020년갈치 11.6t, 광어 623t, 소라 279.7t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수도권 방문 도민 코로나19 확진 서울 광진구 확진자 가족 지난 14일 입도

제주지역에서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549번째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 받고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549번은 서울 광진구 확진자 A씨의 가족으로 서울을 방문한 후 지난 14일 제주에 입도했다. 549번은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549번은 지난 16일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 받고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다.

549번은 현재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이다. 도 방역당국은 549번째 확진자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한다.

또 549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549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17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격리 확진자는 15명(중랑구 확진자 1명, 용산구 확진자 1명 포함)으로 늘었다. 또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총 523개로 파악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강풍·급변풍에 항공기 수십편 결항

17일 제주 전역에 내리진 강풍특보와 제주국제공항에 내리진 급변풍 특보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 수십편의 운항이 취소·지연됐다. 제주지역의 강풍특보는 18일 오전까지 예보돼 있어 공항 이용객들은 악기상으로 인한 항공기 정상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 제주를 출발해 광주공항으로 떠나려던 티웨이항공 TW902편이 결항된 것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49편(출발 24편, 도

착 25편)이 결항했다. 또 출·도착 17편은 지연 운항됐다.

제주공항에는 16일 오후부터 이륙과 착륙 방향 모두 급변풍 특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17일에는 순간최대풍속 초속 12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종일 이어졌다. 또 18일 오전까지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중이고, 전국 대부분의 공항 기상도 나빠 제주기점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항공사로 정상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30대 제주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유 재 호**

제30대 제주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3기 회장 김희수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송 동 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새농민**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송용진 외 회원일동  
제 주 시 회 회장 정재훈 외 회원일동  
서 귀 포 시 회 회장 김중우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훈**

**홍조근정훈장**



**김 영 진**  
(前 서귀포시 부시장)

홍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JCI 중문 청년회의 소회장 강수영  
중문청년회의소특우회 회장 최문성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대통령표창**



**허 상 우**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2,4지역 13-14 회장단 청미회